

시론



오수열
조선대학교 명예교수
한국동북아학회 이사장

미중정상회담과 신형대국관계

은 1990년 해체됐고, 그 지위와 역할을 이어 받은 중국은 상당기간 미국에 대항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2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8차 전당대회에서 시진핑이 권력을 장악하면서부터 중국은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힘이 있어도 드러내지 않는다.'는 지난날의 도광양晦(韜光養晦)에서 벗어나 '할 말은 한다.'는 유소작위(有所作為)를 내세우며 강한성당(強漢盛唐)의 재현을 중국의 꿈(中國之夢)으로 당당히 내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 중국이 내세운 새로운 국제관계의 모델이 다름 아닌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였다. 탈냉전시기 이후 지속되어 온 미국 유일의 패권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중국의 위상을 인정하라는 이른바 'G-2시대'의 선언인데 그것은 미국에 대한 도전이나 다름없었다.

더욱이 2022년 10월 시진핑 주석이 3연임에 성공한 이후부터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위상과 역할에는 놀랄만한 변화가 나타났고, 그 기저에는 중국의 지속적 경제성장과 장기 간에 걸친 미국의 저성장이라는 배경이 놓여 있었다.

때마침 유럽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전쟁이 발발했고, 이 전쟁의 와중에서 국제안보와 무역에 대한 트럼프의 독단과 변덕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서양공동체에 균열의 모습을 드러내게 했다.

그동안 국제관계에서 미국의 패권이 유지될 수 있었던 데에는 나토(NATO)를 중심으로 한 대서양공동체의 결속이 큰 힘이 돼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할 때,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물론이고 미국의 맹방인 영국까지도 유럽 방위에 대한 미국의 신뢰를 의심하게 됐고 이는 최근 미국과 이란전쟁에서의 균열과 비협조로 나타내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곧바로 글로벌 국제관계에

서의 미국의 지위 약화로 직결됐고, 이것이 이번 베이징(北京)에서의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에서 그대로 투영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는 첫째, 미국-이란간 중전회담에 대한 중국의 역할, 그 가운데에서 농축우라늄처리와 호르무즈해협의 자유통항문제, 둘째, 대만 문제, 특히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 셋째, 경제-무역으로 요약됐다.

미국-이란 간 전쟁에 대한 양국 간의 논의는 매우 원론적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이 이란의 핵 보유에 찬성하지 않고 해협의 자유통항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만으로도 미국에게는 적지 않은 소득이 아닐까 싶다.

사실 시진핑이 트럼프를 베이징으로 불러들인 가장 중요한 의도는 두 곳의 전쟁으로 치러 있는 미국에게 중국의 힘을 과시하고 중국의 최대 관심사인 대만 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쉼을 받아 놓으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의도는 트럼프의 입에서 "대만이 독립선언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거나 대만에 "무기를 팔 수도 있고, 팔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으로써 일단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무역문제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는 오는 9월로 합의된 시진핑의 미국 방문 때 그 구체적 결과물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국제관계는 어떻게든 유일패권을 지속하려는 미국과 이를 G-2체제로 안착 시키려는 중국 간의 '기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바, 중국에서는 이를 '새로운 강대국 관계' 즉, 신형대국관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社說

새로운 성장동력 함정 MRO 산업 발판 다지는 전남

전남도가 방위사업청의 방산혁신클러스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Maintenance, Repair, Overhaul) 분야 공모에 선정됐다. 앞서 산업통상부의 중소조선 함정 MRO 강화 지원사업에 이은 쾌거다. 이외에도 조선해양 생산공정혁신(AX) 기반구축, 중소조선 설계엔지니어링 기술지원, 친환경 선박용 극저온 단열시스템 생산제조 사업을 잇따라 따냈다.

조선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할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MRO 거점으로 도약에 탄력이 붙었다. 전 세계 시장은 2000년까지 연평균 2% 성장해 6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통상 협상 과정에서 제안한 전략적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를 계기로 미 해군 함정의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현재 미국은 자국의 조선업 재건과 군사력 증강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최고 수준의 첨단 기술을 보유한 동맹국인 우리나라와 파트너십에 공 들이고 있다.

해양경찰청비상 개창 이후로 수요가 증가하

고 있으며 수리조선소와 기자재기업이 밀집한 서남권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역시 목포에 본사를 둔 ㈜제이케이중공업이 산업부로부터 함정분야 방산업체로 지정되는 일도 있었다. 서해안 조선업체 가운데 처음이다. 상선 중심에서 영역을 넓히게 됐다. 함정 MRO 산업 기반이 순차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지역 조선업의 역량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도전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방산 생태계 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와 체계적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 인프라 확충에 전력해야 한다.

2030년까지 5년간 400억원(국비 245억·지방비 245억) 규모로 추진되는 방산혁신클러스터는 전남을 비롯해 부산·울산·경남이 참여하는 초광역 협력사업이다. 조선소, 기자재, 수리까지 모든 포트폴리오가 반영 6km에 구성된 전국 유일의 집적단지다. 해양정비장과 함께 특수선 분야로 확장할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됐다. 기업들도 지나친 경쟁은 피하고 각자의 능력에 맞춰 수준 물량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개인 소득 '상위 30%' 제외 고유가 지원금 논란

전체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됐다. 광주 동행정복지센터에도 신청카드 등을 수령하기 위해 시민 발길이 늘고 있다. 비수도권인 광주에서는 5만원을 추가돼 15만원을 받는다. 전남권 인구감소 우대 지원지역은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 최대 25만원이다. 신청 기간은 7월 말까지다. 취지에 맞게 주소는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다.

지속해서 오르는 높은 물가에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자동차 휘발유 비용 등으로 충당하게 됐다며 환영 일색이다. 팍팍한 살림에 조금의 여유가 생겼다고 반기고 있다. 골목상권도 소비 회복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하지만 올해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해당되지 않아 반손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자신이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직장인, 자영업자들이 하루아침에 '상위 30%'로 분류돼 탈락하는 손가락이 벌어지는 셈이다. 뚜렷한 근거 소득이 없어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낮은 자산가는 지원금을 쟁길 수 있는 구조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한정된 재원을 경제적 타격이 큰 계층에 집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도 자산과 소득 간 엇박자가 노출되면서 행정 편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민과 중산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있다. 국민신문고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온·오프라인으로 접수하면 지자체와 국민권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통보된다고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나 사실상 인정되기 어렵다. 고유가 지원금은 민생의 시름을 덜어주는 단비가 되고, 지역 상권이 활기를 되찾는 가치 소비로 이어져야 한다. 모든 주민이 빠짐없이 원하는 수단으로 3개월 이상 모두 쓰도록 해야 하는데, 불멘소리가 나온다.

앞서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의 90% 수준까지 받을 수 있었던 반면 고유가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인 3천600만명으로 지급 문턱이 높아지면서 혼란을 부르고 있다. 단순 비교해 1천만명 이상 줄었다. '지난 번에 되고, 왜 이번에는 안 되냐', '빛도 많이 황당하다'는 등 일부 시민 사이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며 불만을 터트린다. 정책의 효과와 반감되는 것이지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기고



나은영
초당대학교 교수

폭롱적이라는 말이 남긴 것

얼마 전 대학생 조카와 대화를 나누던 중 '폭롱적 얼굴'이라는 생소한 표현을 접했다. 처음에는 도무지 그 뜻을 짐작할 수 없어 당황스러웠다. '폭롱(暴龍)'이라면 사납고 거대한 공룡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그것이 어떻게 사람의 외모를 칭찬하는 말이 되었는지 의아함이 앞섰다.

그러나 정작 나를 더 놀라게 한 것은 조카의 무심한 다음 한마디였다. "오줌은 그 표현 잘 안 써요. 유행어 지났거든요." 아니 이제 그 의미를 겨우 파악했는데 벌써 사라지다니.

'폭롱적'이라는 말은 강렬하고 압도적인 매력력을 지닌 외모나 분위기 등을 나타내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탄생한 신조어로 보인다. 하지만 이처럼 화려하게 등장한 유행어들은 그 기세만 높거나 빠르게 사라진다.

디지털 환경 속에서 언어의 생성과 확산, 소멸의 속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다. 언어는 이제 오랜 세월을 걸쳐

서서히 모양이 변하기보다 찰나의 순간에 모습을 바꾸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러한 현상은 흔히 세대 간의 소통을 방해하는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같은 한국어 사용하면서도 특정 단어를 이해하지 못해 대화가 푹 끊기는 경험은 이제 일상의 풍경이 됐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말이 통하지 않는 세대 차이'로만 보기에 언어가 가진 생동감이 너무나 풍부하다.

언어는 박제된 박물관의 유물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사회적 산물이다. 새로운 표현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체성과 날것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며, 우리 시대가 지니는 문화적 자취를 고스란히 담아낸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변화가 언어의 파괴가 아니라 '풍요로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행어의 짧은 생명력은 결코 언어가 망가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고 퍼뜨리는 활발한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어떤 표현이 수명을 다하고 사라진 자리에는 또 다른 기발한 단어가 돌아와 언어의 영토를 넓힌다. 이러한 순환은 언어가 고정된 틀이 아니라 끊임없이 스스로 자라나는 생명체임을 증명한다.

이처럼 끊임없이 생성되고 사라지는 유행어는 언어의 풍요로움을 보여 줄 뿐 아니라 세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문화적 표지로 기

능한다.

유행어는 단순한 언어적 장난을 넘어 세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문화적 기제로 작용한다. 특정 표현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경험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 사이에 묵시적인 연대감을 만들며, 이는 일종의 '언어적 소속감'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이러한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경계 밖에 머물게 되는데, 이때 느끼는 낯섬은 배제라기보다 서로 다른 문화적 경험에서 비롯된 차이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유행어는 세대를 구분하는 장벽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서로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흥미로운 단서가 되기도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낯선 표현을 향한 거부감보다는 그 속에 담긴 사회적·문화적 배경을 읽어내려는 유연한 태도이다. 요즘 세대의 유행어를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은 단순히 단어 몇 개를 외우는 행위를 넘어 세대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서로의 세계를 연결하는 따뜻한 다리가 된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그 시대를 비추는 가장 정직한 거울이기 때문이다. '폭롱적'이라는 단어와의 짧은 만남은 언어의 끈질긴 생명력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했다.

우리는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과정을 통해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타인을 이해하는 작은 실마리를 발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독자투고

최근 광주지역에서 일명식도 없는 귀가하던 여고생을 흥기로 살해한 끔찍한 분노범죄 사건이 온 국민적 슬픔과 분노를 낳고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하루가 멀다하고 연이은 가장 내 흉악범죄에서부터 이상동기 범죄까지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이젠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가정과 생명윤리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반인륜적 범죄가 아무런 죄책감없이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 최근 청소년부터 고령의 노인층까지 쉽게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너무나 허

남을 배려·소중히 생각하는 사회 구현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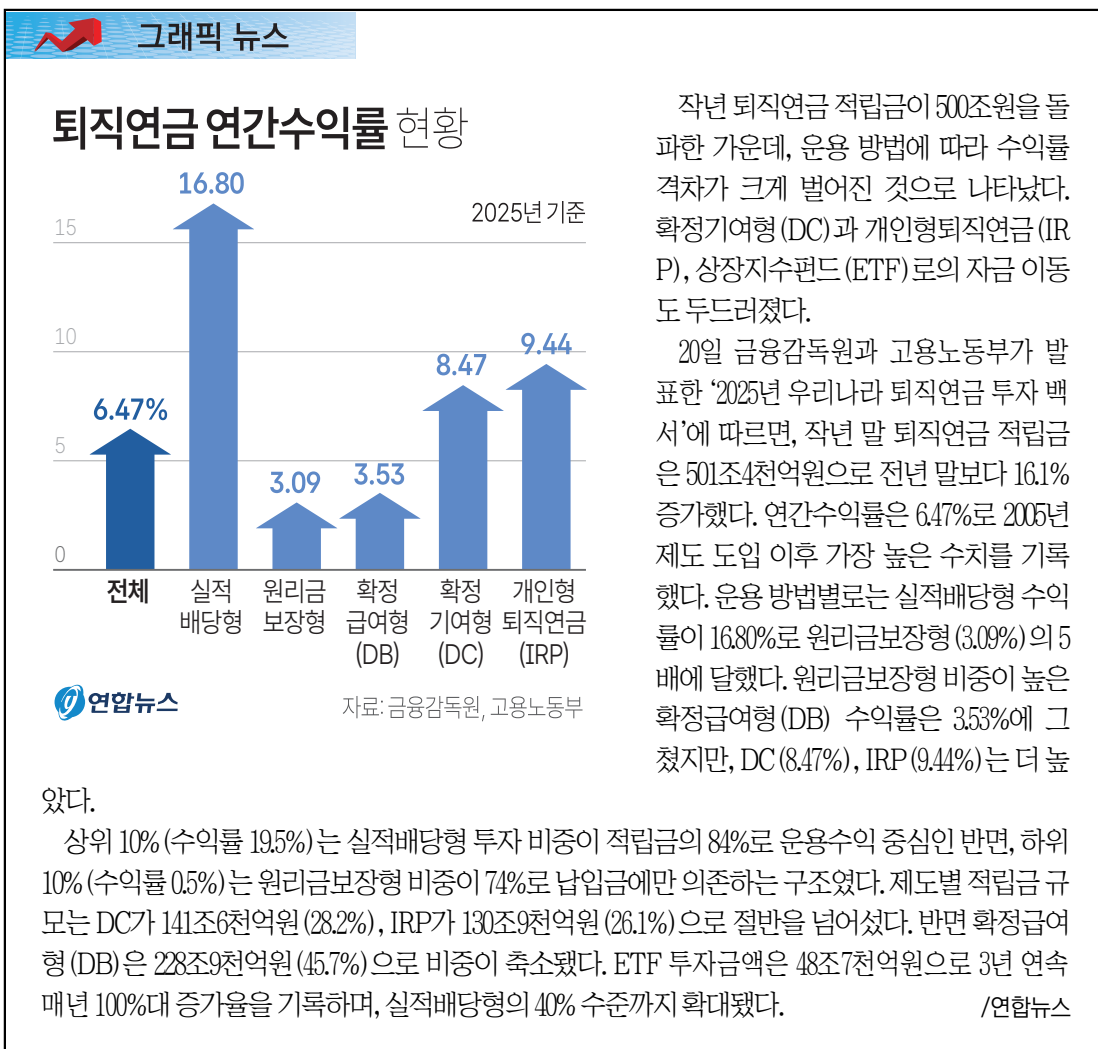
망하게 버리는 인명경시 풍조 또한 우리사회에 심각한 경각심을 울리고 있다. 과연 인간 존엄의 사회인가의 의구심이 들 정도다.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병 때문은 아닐까? 인명경시 풍조가 보편화되고 극심해지면 죄의식 또한 사라져 또다른 비극을 불러올 수 있다. 또한 가족간 이웃간 불신이 쌓이면 공동체라는 울타리마저 붕괴될 수도 있다. 인명경시를 단지 한사람만의 개인적 일탈 문제로 치부해서 는 안될 것이다.

그 이면에는 팽배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또한 한몫을 하고 있다. 인륜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자기와 함께 남을 배려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정과 사회가 구현되길 기대해 본다. <김덕형·장성경철서 삼서파출소장>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부회장 馬讚皓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실시부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입문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